

“통일”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Online Series

2020. 6. 9. | CO 20-09

박 주 화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통일’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을 분석하여 통일담론과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국민은 ‘통일’을 생각하면 ‘북한’, ‘평화’, ‘분단’, ‘통합/화합’ 등이 연상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통일을 우리가 아닌 상대 중심적, 과정보다는 사건 중심적, 가치중립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메마른 우리 사회의 통일 표상은 통일공감대, 통일필요성 중심의 통일담론을 ‘통일’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역량,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인정하는 사회적 지지가 요청된다.

‘통일’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혹자는 한반도기, 혹자는 대박, 혹자는 불안을 떠올릴 것이다. 통일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다양한 이미지, 감정, 단어들을 통해 우리는 통일에 대해 한국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지식, 행동 등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며 사회적 표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성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우리 사회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날재료를 제공해 준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전국 성인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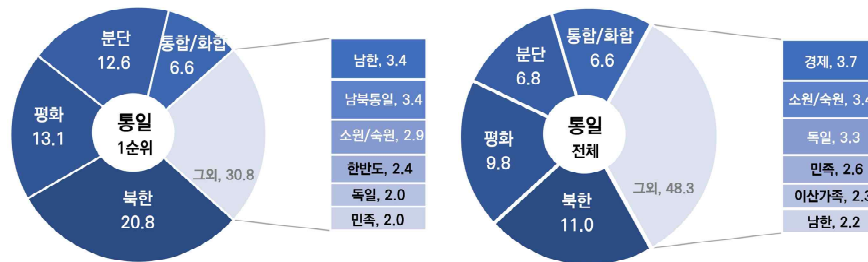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2020년 통일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사업: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의 연구성과의 일부이다.

사회적 표상을 조사하였다.¹⁾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단어 3개를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북한이 떠오른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하 연상어)는 ‘북한’이었다(그림 1). 조사에 참여한 1,600명 중 20.8%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북한’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응답하였다. ‘평화’, ‘분단’, ‘통합/화합’이 그 뒤를 이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떠올린 모든 단어(1순위, 2순위, 3순위)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도 ‘북한’, ‘평화’, ‘분단’, ‘통합/화합’ 순이었다.²⁾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통일’을 ‘북한’, ‘평화’, ‘분단’, ‘통합/화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통일에 대한 1순위 연상어(좌측)와 전체 연상어(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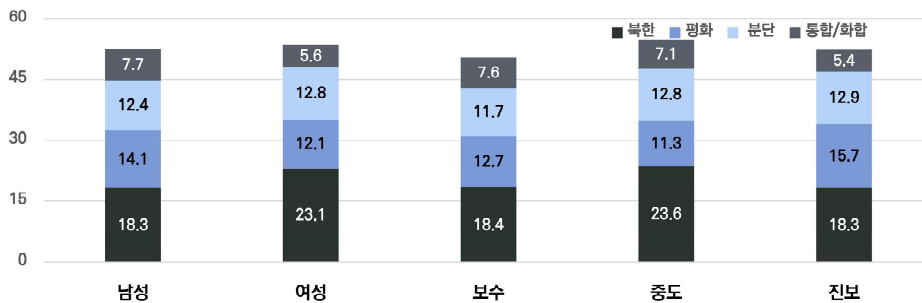


‘통일’의 사회적 표상이 북한, 평화, 분단, 통합/화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별, 연령, 이념에 따라 4개 주요 연상어의 상대적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머릿속에 연상된 단어(1순위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일을 북한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다(그림 2).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관한 사회적 표상의 차이도 관찰되었다(그림 3). 20대와 40대의 경우 통일과 연상된 단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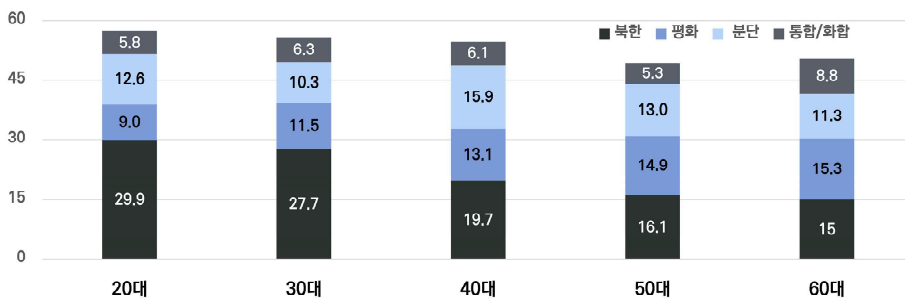
1) 닐슨코리아에 의뢰하여 2020년 4~5월,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2) 그림의 수치는 1,600명 조사 참여자들이 세 번 응답한 4,800단어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1순위, 2순위, 3순위 중 한번이라도 ‘북한’을 언급한 조사 참여자는 529명으로 1,600명 기준 33.0%이며 4,800단어 기준 11.0%이다.

중요성, 즉 각 연상어를 언급한 조사 참여자의 비율은 ‘북한>분단>평화>통합/화합’ 순이었다. 30대와 50대의 경우 연상어의 중요성은 ‘북한>평화>분단>통합/화합’의 순이었으며, 60대 이상은 ‘평화=북한>분단>통합/화합’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중도는 ‘북한’, 진보는 ‘평화’, 보수는 ‘민족’을 다른 이념집단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2).

<그림 2> 성별과 이념에 따른 통일에 대한 1순위 연상어



<그림 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1순위 연상어



통일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차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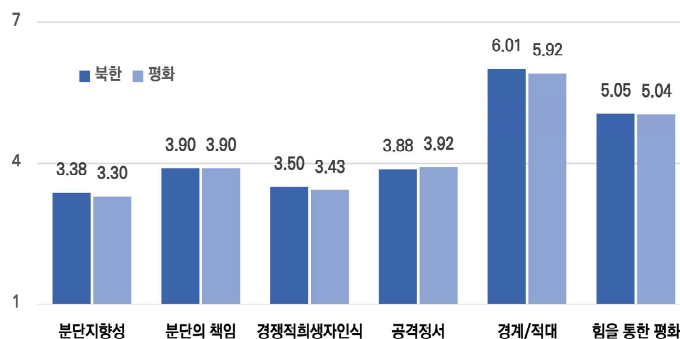
이론적으로 사회적 표상은 개인이 형성하는 평가, 기대, 예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태도는 사회적 표상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생각할 때 무엇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즉 통일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 따라 통일에 대한 기대,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선호하는 수단에 있어서 차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추가적 분석은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였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북한을 처음 떠올린 응답자(이하 북한연상집단)와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평화를 처음 떠올린 응답자(이하 평화연상집단)는 분단이 지속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도(그림 4: 분단지향성)는 차이가 없었지만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태도(그림 5: 통일지향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³⁾ 평화연상집단이 북한연상집단보다 통일 지향성이 높았다. 또한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두 집단은 차이가 없었지만, 평화연상집단은 북한연상집단에 비해 분단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강했다.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두 집단은 공통적인 인식과 차별적인 인식을 노출하였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분단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경쟁적 희생자 인식에 있어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는 정도는 북한연상집단이 평화연상집단에 비해서 더 강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 그리고 증오, 분노, 절망 등 공격적 행동을 암시하는 정서(그림 4: 공격정서)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인식과 불안, 두려움, 걱정 등 유화적 행동을 암시하는 정서(그림 5: 방어정서)는 평화연상집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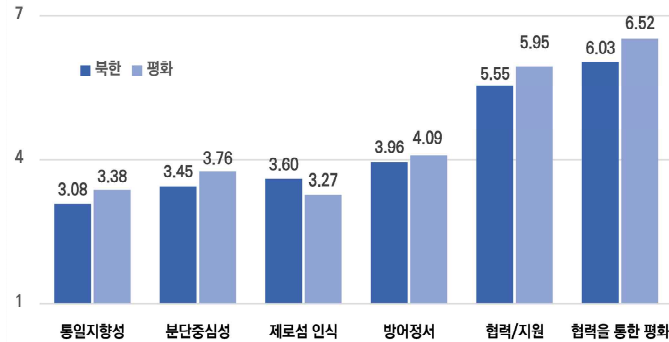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평화연상집단과 북한연상집단은 힘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평화연상집단은 북한연상집단에 비해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강했다.

<그림 4> ‘북한’ 집단과 ‘평화’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는 태도



3) 모든 비교는 t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의수준은(p-value) .05이다. 각 태도에 대한 구체적 문항은 2020년 12월 출간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사업: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에 제시할 예정이다.

〈그림 5〉 ‘북한’ 집단과 ‘평화’ 집단 간 차이가 나는 태도



함의와 도전: 북한 중심, 사건 중심, 중립적 통일 표상

이상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에 대한 표상은 ‘나’ 또는 ‘우리’가 아닌 ‘상대’, 북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일은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업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통일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이 북한이며, 북한을 언급한 응답자의 비율이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남한을 언급한 응답자의 비율보다 5배 이상이라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통일을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아닌 북한의 현재와 북한의 미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내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한 비율이 56.2%였다. 통일이 우리 국민의 삶과 괴리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통일을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통일에 대한 표상은 과정과 비전, 가치가 아닌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순위 연상어와 전체 연상어를 모두 고려했을 때 가치지향적인 연상어는 ‘평화’, ‘통합/화합’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건이 추상적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연상이 된다. 또한 통일이 미래에 발생할 가상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치나 과정, 비전보다 사건 중심으로 통일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존 통일 담론이 공통적으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가치, 통일의 편익, 통일의 과정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사건 중심의 통일 표상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셋째, 통일에 대한 표상은 중립적이다. 통일과 관련된 연상어들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통일에 대한 표상이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도 없으며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려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통일과 관련된 표상,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통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통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첫 번째 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통일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통일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약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호불호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통일문제, 북한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역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북한, 평화, 통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일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었을 수도 있다.

넷째, 통일에 대한 표상은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10여 년간 지속된 북핵 위기는 20-30대 통일 표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5%이지만 젊은 시절 독일통일을 경험한 50대가 독일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또한 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표상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통일의 상(像)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태도,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평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한 태도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적 과제

첫째, 통일공감대가 아닌 통일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통일像은 ‘북한과 하나가 되는 사건’일 뿐이다.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또는 ‘정치’와 ‘경제’를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와 비교한다면 우리 사회의 통일像이 매우 메말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빈약한 통일의 상은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통일을 전제한 통일공감대 확보에 두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평화·통일교육은 북한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가 되는 과정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토론이 아닌,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치 역사수업에서 역사의 내용이 아닌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통일에 대해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편익이 있다 vs. 편익이 없다’를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의 일상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통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북한이라면 그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에 있어 북한은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대상이다.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에 따르면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다. 이러한 모순적 북한관은 전쟁 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인식이다. 그럼에도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관점은 상대를 적 또는 아군으로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 정치·군사적 관점으로 이 인식 간 균형적 인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순을 인정하는 것과 경계와 협력의 균형은 다른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정보와 담론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정치·군사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통’, ‘암담’, ‘두려움’, ‘우울’, ‘괴로움’, ‘섬뜩’, ‘분노’, ‘환멸’ 등 부정적인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 정도로 비인간화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고통 속에서 암담하며 섬뜩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통일像에 있다. 평화의 시작은 ‘적대적 대상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의 변화이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북한에서의 삶,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일상 삶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과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분단이 일상화된 정치·사회적 환경, 분단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경제적 환경에서 통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통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의문이 반통일, 분단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근본적 이유일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의문에 던지는 불편한 시선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어 평화·통일 교육 장면에서 교사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학생들이 제기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그 순간 교사는 합리적 통일반대 논리를 어떻게든 돌려놓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논리를 인정하고 토론을 해야 할지 갈등에 놓이게 된다. 통일반대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순간 교사는 동료, 학부모, 또는 사회로부터 반통일 수업을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지 두려움을 느낀다.⁴⁾ 통일교육지원법의 고발조항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⁵⁾

4) 교사들의 43% 이상은 평화·통일교육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교사들의 5% 정도는 동료교사와 학부모와의 갈등을 염려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2019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9), p. 162.

5) 통일교육지원법 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한다. 의문과 질문이 불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의문과 질문은 확신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통일에 대한 의문과 질문, 다시 말해 통일상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통일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창의성 역시 의문과 질문에서 시작된다. 남북관계의 교착이 지속되고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창의적 해법이 부족한 것은 질문과 의문을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 탓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국민들의 힘,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열린 민주주의, 소통, 투명성 속에서 우리 국민은 건강한 양식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 통일에 대한 질문이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KINU 2020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지혜에 이를 수 있다”

- 피에르 아벨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